

작업실 'open' ... 창작은 각자, 예불은 함께

불자 청년 예술가들 모여 만든 생활작업실 '화제'

손베를직물디자인, 페브릭디자인, 일러스트, 만다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힘을 이루어 공간을 사용하는 생활 작업실이 오픈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지음'과 '누하동93'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교공부를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함께 예불도 드리고 일에 대한 고민도 나누는 이 공간은 삶의 소용 공간이자 실행 장소이다.

6월 16일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생활작업실을 찾았다. 2층의 주택을 작업실로 개조한 이곳에는 손베를직물 디자인을 하는 지음의 유정진(34)·이혜진(28) 작가, 영상 작업을 하는 프로덕션 누하동93의 감독 권익경(35), AD 이수진(26) 씨 등이 각자의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음은 단청색을 기본으로 한 손베를 작업으로 작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 강의 등을 통해 심리치유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모색중이다. 또한 누하동93은 다양한 영상물을 작업하는 프로덕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아침 7~8시 즈음에 출근해 작업실 청소를 한 다음 9시에 예불을 드리고 자비경을 읽으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각자의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각자의 일을 시작하니 하루가 보람되고 즐겁다. 이 공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불교공부 모임을 하던 도



다양한 분야의 불자 예술가들이 모여 예불도 드리고 작업도 하는 생활 작업실이 오픈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불자예술가들로 왼쪽부터 이수진, 이혜진, 유정진, 권익경 씨.

베를팀 지음·영화팀 누하동93 등 다양한 예술가 모여 공동체 형성
매일 아침 예불로 마음 '청정'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도 모색중

반대로 만나 작업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동료로까지 발전했다고.

유정진 씨는 "불교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알음알음으로 연결이 되어 현재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죠. 모두가 예술을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점도 많으니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일상을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의 밥을 나누어 먹으며

살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 씨는 공동 작업실에서 기도하고 작업하다보니 각자의 삶도 더 단단해졌다고 말한다.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예술가들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매일 아침 예불을 드려다 보니 차분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어요. 처음 이사를 올 때보다 이 공간이 좀더 청정해진 느낌을 받는 것도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작업실은 4월 두 달간의 테스트 생활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공간 오픈식을 가졌다. 전시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오픈식에는 그동안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식을 접한 200여 축하객들이 손님으로 몰려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혜진 씨는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지는 몰랐어요. SNS로만 알던 친구들이 저희들이 올린 소식을 접하고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 그야말로 큰 잔치가 되어 버렸죠."

지음을 비롯한 각 팀들은 앞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으로의 모색을 계획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은 3~4개월에 한번씩 오픈해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며 회향의 시간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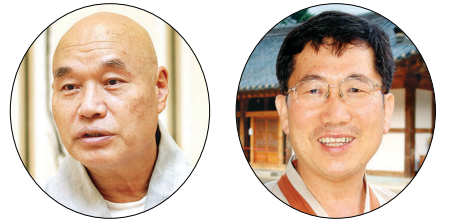
유정진 씨는 "이곳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갤러리인지 알고 그냥 불췌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인데 그런 방문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공개 오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회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강경 500자 보완해 책과 CD로

가사체 한글 금강경·교감본 한문 금강경



'가사체 한글 금강경·교감본 한문 금강경' CD 표지



무비 스님, 조현준 거사

가사체금강경독송회장 조현준 거사가 무비 스님과 함께 번역한 '가사체 한글 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책(은주사)으로 발간하고 동시에 음반으로도 출시했다.

특히, '교감본 한문 금강경'은 누락된 금강경의 500자를 보완해 눈길을 끈다. 조현준 거사는 "2012년 가사체 한글 금강경을 책으로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함께 엮어 책과 음반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10% 정도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스님은 이번 교감본을 통해 이를 보충하라고 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 거사는 "이번 교감본을 위해 각목 스님의 법본, 전재성 박사가 소개한 법본, 티베트어본과 몽골어본 등을 참고하여 500여 글자를 수정보완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 일

부 누락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누락이 심한 부분은 바로 26장 '법신에도 걸리지 않음'이다. '불야 세존 불응 이구족상 관여래(不與世尊 不應以具足相 觀如來)...' '응관 불법성 즉도사법신(應觀 佛法性 卽導師法身)...' 등의 생략 부분을 추가보완해 해석을 명확히 했다.

무비 스님·조현준 거사 공역
신행수첩, 법요집 등 활용 가능

조 거사는 "이번 경전이 나오기까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었고, 불교 경전을 함께 번역하고 있는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학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 책과 CD가 사찰이나 다른 출판사의 신행수첩, 법요집, 해설집, 불교의식집, 불교성전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TN,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실시

독경 및 108배 파일 무로다운로드 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분임)는 기존 TV 채널을 통한 방송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BTN콘텐츠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BTN은 △독경 및 108배 파일 무로다운로드 △BTN 불교라디오, 팟캐스트, 팟, Tunein 등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법문 청취가능 △SNS를 통해 방송참여, 뉴스 제보 실시간 접수 △7월부터 전국 KTX와 공항철도 노선에 BTN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특히, BTN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및 다시보기만 가능했던 '나를 깨우는 108배(백팔대참회문)'와 사시예불, 한글 새벽예불, 금강경 등의 독경음원을 MP3형태로 무료 배포한다. ARS후원전화(060-800-7000)를 걸면 문자로 URL 주소를 제공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BTN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108배와 독경 MP3를 저장해 활용하고 싶은 불자들의 요청이

많은데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한, BTN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들던 BTN불교라디오를 '팟빵', 'TuneIn'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팟빵'은 팟캐스트 이용자라면 익숙한 애플로, 최근 라이브 메뉴에 'BTN불교라디오 울림-법문채널'을 추가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월 5천만명이 이용하는 TuneIn 애플도 BTN불교라디오에 추가됐다. 특히 TuneIn라디오의 경우, 자체 알람기능이 있어 법문방송으로 아침을 맞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운용중인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멜로이디를 추가 개설해 시청자들과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기존 문자보내기 서비스(#1252)가 있었으나 카카오톡, 멜로이디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BTN을 친구 추가 해놓으면 따로 번호 등을 기억할 필요 없이 검색으로 쉽게 BTN 운영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

6월 26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전시실서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이 6월 26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기능보유자 故월주 원덕 문스님 유품 및 유작 6점(단청, 불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소은 김용우 선생 작품 약 30점(기와, 불화, 단청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및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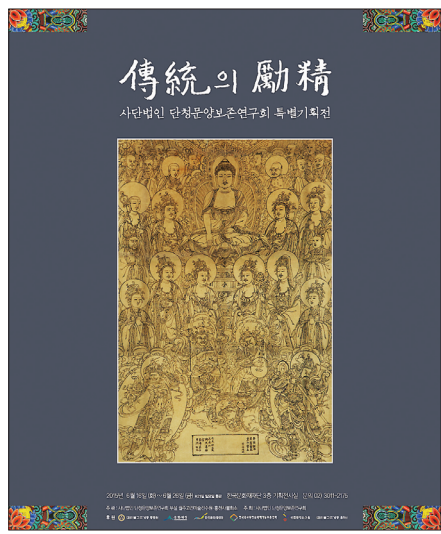
회원 그리고 흥천사불화소 소속 작가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월주 원덕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품 및 유작이 전시된다. 여기에는 낙헌 스님에게서 받은 불화초첩, 월주 스님의 선화를 비롯해 단청 문양작품, 금박산수병풍, 불화작품 등이 포함된다.

월주 스님의 화풍을 잇는 소은 김용우 선생의 작품으로는 달마도, 기와에 그린 선화

작품, 단청문양 작품 등이 선보인다. 이밖에도 이연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불상조각가 서철교, 최학(불교문화재연구소), 권지은(국립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고승희(동국대 초빙교수), 박철중(동국대 외래강사), 강나영(문화재수리기술자), 김민재(문화재수리기술자), 유한울(문화재수리기술자), 조찬미, 권예슬, 최주희, 박지유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02) 913-24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 포스터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탕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